

보육실습일지		결재	실습생	지도교사	원장
			박수아 	황윤희 	이상희 
반명	씨앗반	일시	2025.05.08. (목)		
날씨	맑음	결석 영유아	김도운		
주제	봄을 느껴요	소주제	들으며 느껴요		
시간 및 일과	활동계획 및 내용		평가 및 유의점		
9:00 ~ 9:30 등원 및 통합보육	<b>등원 및 통합보육</b> · 선생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교실로 들어와요. - 교사는 등원한 영아를 반갑게 맞이한다. - 다양한 교구를 활용하여 자유롭게 놀이한다.		등원 후 옷은 얼굴로 영아를 맞이해 주며, 반갑게 인사한다.		
9:30 ~ 9:50 오전간식	<b>오전간식 (소고기죽)</b> · 음식 냄새를 맡아요. - 교사는 개별적인 상호작용을 하며 올바른 식습관을 지도한다. - 간식에 대해 알고 즐겁게 먹는다.		손으로 입에 있는 음식을 빼내는 영아를 제지하고 바르게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. 또한 다 먹은 영아의 입 주변을 닦아준 후 다 먹은 영아는 자유롭게 놀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.		
9:50 ~ 10:50 자유놀이	<b>자유놀이</b> · 소리 나는 놀잇감을 탐색해요. - 원하는 교구를 선택하여 자유롭게 놀이한다. - 다양한 교구의 소리를 들어본다.		영아가 다양한 교구의 소리를 들어보며 탐색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. 영아의 행동을 짚어서 칭찬해 주고, 이야기하며 상호작용해 주었다.		
10:50 ~ 11:30 바깥놀이 (산책)	<b>대체활동 (어버이날 카네이션 사진 촬영)</b> - 어버이날 행사로 인해 어린이집 강당과 마당 꽃밭에서 교사가 제작한 카네이션 교구를 들고 사진을 촬영하였다.		다른 영아가 사진을 찍는 동안 놀이터에 있는 자동차 교구들을 탐색해 보고 놀이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.		
11:30 ~ 11:40 손씻기	<b>손씻기</b> - 놀이 후 교사와 함께 손을 씻고 스스로 닦아본다.		점심을 먹기 전 손을 깨끗이 씻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.		
11:40 ~ 12:30 점심시간	<b>점심시간 (*식단 참고)</b> · 음식 냄새를 맡아요. - 음식에 관심을 갖고 바른 자세로 먹는다. - 수저와 포크를 사용하여 스스로 먹어본다.		주어진 음식을 골고루 다 먹을 수 있도록 기다려 주고 격려하였다. 영아가 포크를 들고 스스로 먹어볼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. 점심을 다 먹은 영아들의 입 주변을 깨끗이 닦아주었다.		
12:30 ~ 14:30 낮잠	<b>낮잠</b> · 선생님이 불러주는 자장가를 들으며 낮잠자요. - 자장가를 들으며 편안한 분위기에서 휴식을 취하며 낮잠을 잔다. - 개별 이불을 찾아 스스로 누워본다.		졸려하는 영아들의 잠자리를 마련해 준 후 편안하게 잠들 수 있도록 도와준다.		
14:30 ~ 15:10 오후간식	<b>오후간식 (맛살야채전)</b> · 음식 냄새를 맡아요. - 수저와 포크를 사용하여 스스로 먹어본다. - 손과 입 주변을 닦고 난 후 자유롭게 놀이한다.		먼저 잠에서 깬 영아들부터 먼저 배식된 간식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. 영아가 도구를 사용하여 스스로 먹어볼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.		
15:10 ~ 16:10 자유놀이	자유놀이		같은 교구를 가지고 놀고		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소리 나는 블록을 쌓아요.</li> <li>- 다양한 교구를 관찰하며 탐색해 본다.</li> <li>- 각 흥미영역에서 개별적 혹은 소집단으로 원하는 놀이를 한다.</li> </ul>	<p>싫어하는 영아들에게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지하고 중재하였다. 또한 영아들이 다양한 교구를 관찰하고 놀이해 볼 수 있도록 격려하였다.</p>
16:10 ~ 17:00 하원지도 및 귀가	<p>하원 지도 및 귀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부모님과 손을 잡고 집에 가요.</li> <li>- 오늘의 활동을 이야기하며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바르게 인사해 본다.</li> </ul>	<p>영아들이 자신이 사용하던 교구를 스스로 정리해 볼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었고, 도와주었다.</p>
실습생 평가	<p>씨앗반에서 실습한 지 이틀 차가 되었는데 어제보다는 영아들과 더욱 더 친밀감을 쌓고 놀이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다만 어제처럼 영아들끼리 다툼이 있었을 때 제지하고 중재하는 부분이 아직 능숙하지 못해 아쉬웠습니다. 또한 영아의 기저귀를 처음 갈아보았는데 갈아주는 동안 영아가 불편해하는 것 같아 더욱 신경 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. 아이들이 낯설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도록 더 친밀하게 다가가 영아와 상호작용하며 놀이하고, 여러 영아를 한눈에 파악하고 관찰하는 등 시야를 넓게 보려는 노력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겠습니다.</p>	
지도교사 조언 및 평가	<p>첫날보다는 표정이나 상호작용하는 모습이 더 여유있어 보였습니다. 영아의 이름을 불러주고 기질과 반응을 관찰하며 다가가려는 태도가 좋아보였고 교사가 영아의 기저귀를 갈아주는 모습을 보고 영아의 기저귀를 확인하며 갈아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. 교사의 설명에 귀 기울이며 수행하려는 태도가 좋았습니다. 첫날보다 자신감을 보여 앞으로의 모습이 더욱 기대됩니다.</p>	